

지역 소식통

연극 '2호선 세입자' 2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코믹 감동 휴먼 판타지 연극 (2호선 세입자)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네이버 인기 웹툰 평점 9.9점의 동명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호선에 사람이 산다는 기발한 발상 아래 실제 지하철도를 가져다 놓은 듯한 생생한 무대와 배우들의 뛰어난 코믹 연기로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중독성 강한 알짜배기 공연으로 진짜 2호선을 탄 듯한 흥미진진함,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강력 추천 공연으로 건강한 웃음과 깊은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바쁘고 각박한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각자의 사연을 지닌 채 2호선 열차에 숨어사는 세입자들과 그들을 @아 내아만 하는 계약직 역무원의 이야기를 코믹하고 파스하게 담아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6월 '이달의 소장품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내패, 목공장인의 지혜와 기술력의 조화'라는 주제로 벽골제이리탐사업소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달의 소장품' 전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박물관 로비에 별도의 전시 코너가 마련돼 관람객의 특별한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목공(木工) 연장 중 하나인 '내패'를 조명하고자 기획전을 준비했다. 내패는 목재 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필수 연장이며, 목재의 표면을 다듬기도 하고 다양한 장식 효과를 나타내는 연장이다. 내패는 종류와 모양이 다양한데 전통적인 내패는 밑에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식 효과를 나타내려고 시도하며 여러 다양한 내패를 만들어 내는 배경이 됐다. 내패는 주로 수축·변형이 적은 참나무·노티나무·떡갈나무 등으로 제작했다./김제=곽노태 기자

만경강 흐르는 문화생태마을 조성

김제시 청하면 척산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 청하면 척산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농어촌마을의 경관을 개선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제시 청하면 척산마을 (사진=김제시청 제공)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2월 까지 청하면 척산마을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만경강이 흐르는 문화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만경강변 생태환경 조성, 만경강변과 마을 진입 연결공간 경관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담장·지붕개량 및 도색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회관 옆 창고를 개·보수해 마을회관과 연결, 주민 여가 및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척산마을은 아름다운 만경강과 만경강변을 끼고 파크골프장과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문화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척산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하면 척산마을은 만경강과 소상산 일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49가구 8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완주군의회, 직원복지와 교육,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가 11일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행정복지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전에 행정복지국 총괄 질의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 나선 유의식 의원은 "후생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원휴양시설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가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곳에 대한 회원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간단체 구성에 힘써달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부건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의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도로명과 산업단지명 등을 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이순덕 의원은 "경로당에 에어컨,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돼 있는데 사용도가 많다"며, "잔수조사를 통해 수리가 불가능한 비품에 대해서는 새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 교육에 대한 확대를 통해 신규공직자의 인성 및 건강, 공감 교육 등을 추진해 달라 덧붙이고, 북한이탈주민들에 정착지원과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 1담당마을 지원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완주군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면서 군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청사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이수 의원과 이주갑 의원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진행사항과 군민들의 체감도 등을 체크해 달라 요청하며, 상관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본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완주군 주제 행사에 전주시장의 축사는 지양해 달라 요청하고, 통합논의시 '축제'라는 표현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최광호 의원은 조직개편 시 자체 의견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완주군에 거주하는 완주군민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여부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고, 남은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천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수전보기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공직자들의 의견 반영 및 읍면장 인사배치 시 신중히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민선 8기 공약 점검을 통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문하고, 완주전상생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상관저수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 예산이 반영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7월 중 관련 예산이 전주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공정한 인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모색, 조직 내 부서간, 상·하 소통 부재, 각종 위원회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설치

완주군, 공취팔쥐도서관 이어 보건소·근로자종합복지관 7월 운영

완주군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르면 공취팔쥐도서관에 이어 삼봉지구의 보건소, 봉동읍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추가 설치한다.

11일 완주군은 지난 2022년에 공취팔쥐도서관에서 설치한 무인회수기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추가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취팔쥐도서관 수거량은 총 5.1톤으로 월평균 이용자 수는 22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수거량은 3.8톤, 월평균 이용자 수는 2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2023년 완주군 투명페트병 전체 수거량(106.6톤)의 5%(5.1톤)에 달한다.

보건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추가 설치되는 무인회수기는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무인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 인공지능과 기술을 활용한 자동순환 로봇이다.

화면에서 핸드폰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리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한사람이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



할 수 있으며, 수거된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된다.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운영업체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회수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활용 원료로 재생되며,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게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일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경제복지국장)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시를 비롯해 김제교육지원청, 김제경찰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청소년 연계기관 담당자 및 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차 선정 심의 및 지역 관계 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1차 대상자 선정에 관해 지난 4~5월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한 10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별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복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최종 5명이 올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1차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의료급여수급자 심리지원

완주군이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024 건강생활지원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11일 완주군은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15여 명을 선정해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최근 3개월 간 총 4회에 걸쳐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화사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과거 회상 및 가치관 정립, 부정적·공정적 감정

표현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또한, 감정의 안정화를 위해 미술치료, 원예치료도 병행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후에도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교육을 추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